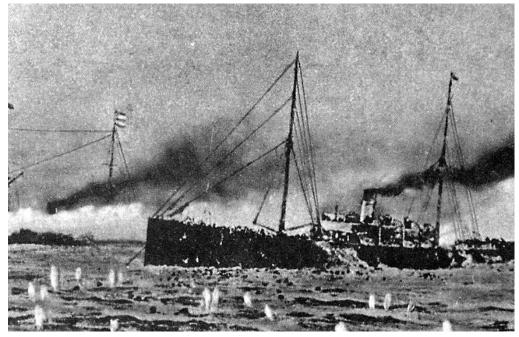
슬픔 실은 '고승호' 끝나지 않은 항해

〈1894년 서해서 침몰한 청나라 선박〉



청나라 수송선 고승호가 일본 함선의 포격을 받아 침몰하는 모습.

Agingma Data or yell hand.

목포 해양문화재연구소 10월4일까지 해양유물전시관서 특별전 유물 \cdot 기록 통해 동학혁명 \cdot 청일전쟁 등 동아시아 근대사 재조명

1894년 7월25일 경기도 안산시 풍도(豊島) 앞바다에서 1000여 명의 청국 병사를 태운 수송선 '고승호'(高陞號)가 일본 함선의 포격을 받아 침 몰했다.

고승호(길이 72.6m, 적재량 2134t급)는 1833 년 영국 배로우 조선회사에서 건조한 증기선이 었다. 청나라는 조선에서 발생한 동학농민혁명 진압용 군사수송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당시 이 배를 4만 파운드에 임대했다.

침몰 당시 고승호는 병사와 각종 물품을 싣고 인천 해역으로 들어오던 중이었다. 하지만 일본 군 함대가 청군 함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풍도 해전 발발과 함께 기습 공격을 받아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됐다.

제국주의 열강의 야욕, 힘없는 국가의 희생을 잘 보여주는 이 사건은 청일전쟁의 서막을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일본과 중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록물이 전해오고 있다. 하지만 당시 고승호에 군자금으로 쓰일 은덩이와 은화 약 600t이 실려 있다고 전해지면서 '보물선'이라는 화려한 수식어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아직도 서해에 잠들어 있는 고승호가 끝나지 않은 항해를 계속한다.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광복 70년을 기념해 인천시립박물관과 공동으로 4일부터 10월4일까지 해양유물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고승호, 격랑의 청일해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고승호 인양 유물과 관련 된 역사 기록물 1000여 점 등을 만날 수 있다. 국 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를 통해 '보물선' 고승호가 아닌 '수중문화유산' 고승호의 잊힌 역사를 소개하는 동시에, 근대 '위기의 대한제국'과 '동 아시아의 아픈 역사'를 재조명한다.

이번 전시는 모두 4부로 꾸며진다. 제1부 '고 승호의 항해와 침몰'에서는 풍도해전과 고승호 침몰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고승호에서 인양된 은덩이, 무기류, 중국 동전 등 유물을 통해 고승 호의 성격을 확인해 본다. 제2부 '위기의 조선' 과 제3부 '이방인들의 전쟁'에서는 각종 문헌자 료를 바탕으로 19세기 후반 국내외 정황과 고승 호 침몰사건의 역사적 배경 등에 대해 살펴본 다. 마지막으로 '고승호, 침몰 그 이후'에서는 그간 이루어진 고승호 탐사에 대해 알아보고, 수중문화유산으로서 고승호의 가치를 되새겨 본다.

고승호 보물 소동은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이후, 그리고 근래까지 약 100년에 걸쳐 계속됐다. 일본은 한반도 점령기간인 1930년에 인양을 시도했으나 기술 부족 등으로 실패했고, 우리나라도 1971년 고승호에 대한 인양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또 지난 1998년 11월 한 선박회사가 고승호를 발견했다며 발굴승인을 신청했고, 2001년 8월에 는 발굴에 나선 한 회사가 은화와 은덩이 몇 개를 발견하는 등 그동안 '보물'을 찾으려는 욕심으로 바닷속에 잠든 소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되고 있 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의 061-270-300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고승호에서 건진 일본도자기, 은덩이, 영국 물품. (위부터)

쉴새 없는 웃음폭탄 '라이어2' 광주 공연

30일까지 유·스퀘어 동산아트홀

쉴새 없이 쏟아지는 웃음 폭탄에 정신이 없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통제불가능의 상태에 빠질 듯하면서 절묘하게 위기에서 벗어나 는 주인공의 모습은 관객을 포복절도케 한다.

연극 '라이어'는 전 세계 60개국에서 쉴 새 없이 공연되고 우리나라에서도 18년째 장기 상연중인 코믹 연극 작품의 대명사다.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은 오는 30일(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3시·7시, 일요일 오후 3시· 월요일 공연 없음)까지 '라이어 2탄'을 공연한다.

택시 운전사 존 스미스는 20년간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다. 메리와의 사이에서 딸 비키를, 바바라와는 아들 케빈을 둔 그는 철저히 비밀을 지키며 완벽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비키와 케빈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서로 알게 되고, 케빈 이 비키의 집을 찾기로 하면서 그의 거짓말은 탄 로날 위기에 처한다.

'라이어'를 처음 접한 이들은 웃느라 정신 차리기 힘들다. '라이어' 첫번째 시리즈를 봤던 사람이라면 다소 예측가능한 장면들이 있기는 하지만 웃음의 포인트는 여전히 유효하다.

'라이어'의 특징은 톱니바퀴 맞물리듯 정확하게 돌아가는 스토리와 배우들의 연기조합이다. 배우간의 호흡이 조금만 틀어져도 효과가 반감된다. 끝까지 비밀을 감춰야 하는 존 스미스, 울며겨자먹기로 끝도 없이 거짓말을 해야하는 하숙생스텐리, 오해 속에서 분노지수를 높여가는 메리,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존 스미스의 아버지까지. 광주 공연팀의 경우 첫 날 첫 공연이었음에도 별다른 삐걱거림 없이 완전한 합을 자랑할 정도로배우들의 호흡이 좋다.

티켓 가격 전석 3만5000원.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다. 문의 062-360-843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누리카드 여름방학 맞이 특별이벤트

이달까지 공연·관람 등 최대 50%할

인망주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진)은 문화누리카 드 '여름방학 맞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으 여름당악 맞이 알인 이벤트 를 신행한다. 이번 이벤트를 이용하면 이달까지 홈페이지에 등록된 전국가맹점에서 공연·도서·영화·여행·숙 박 등을 최대 50% 할인된 금액에 즐길 수 있다.

가족여행을 떠나고 싶은 수혜자는 코레일 관광

개발에서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 파격할인 기차 여행상품'을 눈여겨 볼만하다.

그밖에 인터파크 도서와 영풍문고 등 대형서점에서도 다양한 할인혜택을 만날 수 있으며 연극 '라이어2'와 '그놈을 잡아라', 장윤정 콘서트, 그루부라임 콘서트 등을 25~50% 할인된 가격에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670-7912~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극단 '청춘' 7일까지 어린이 연극캠프 참가자 모집

극단 '청춘'이 광주 서구 문화센터 연습실에서 어린이 연극 캠프 '연극하고 놀자!'를 진행한다. 캠프는 초등학교 3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열

캠프는 초등학교 3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열리며 일정은 오는 8월10~21일(오전 9시 30분 ~ 낮 12시 30분)까지다.

참가자들은 연극 놀이, 독백 대사, 특강(무용· 국악) 등에 참여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마감은 오 는 8월7일까지며 22일 서구문화센터 야외무대에 서 열리는 디오니소스 페스티벌에서 발표회도 갖

극단 청춘 다음(cafe.daum.net/cctheater) 카페에서 신청서 다운 후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430-52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